

민족을 사목하기 위해

송 향 숙 생활성서 기자



여성운동인으로 알려진 박 영숙 씨가 어느날 갑자기 평화민주당에 입당, 총재 권한대행, 평민당 국회의원 전국구 1번, 유일한 여성 부총재로 우리 앞에 나타났다. 청렴한 그리스도인인 그가 잇권 사회이면서 일체의 자기를 부정하고 당원으로만 존재해야 하는 한국의 정치판에 뛰어든 이유는 무엇인가.

세칭 출세 때문만은 적어도 아닌 것 같다. 그가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던 기회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이미 공화당과 유신 때, 권력자들이 그를 국회의원으로 포섭하려고 두 번씩이나 감금 시키기까지 했지만, 그는 이를 결연히 거부했었다. 그러던 그가 대통령선거 후 이른바 '침몰하는 배(sinking boat)'라고들 칭하던 당시의 평민당에 입당한 것이다. 그 시기에 그 당에 뛰어든 이유는 무엇인가?

70시간 만에 만난 부부

“이왕 정치인이 되려면 지금 평민당에 입당하라.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가서, 당이 망하거든 함께 망하라. 그러나 정치인이 되고 안 되고의 결정은 자신이 하라”고 지독한 충고를 해준 사람은 바로 그의 남편 안 병무 씨. 안 병무 씨는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알려진 민중신학자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받은 그는 한신대학에서 신약학을 가르치다가 작년에 은퇴, 지금은 한국신학연구소 소장으로서 있다.

사생활의 작은 문제에서부터 범국가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정치가 간섭하지 않는 게 없고, 그런 만큼 중요한 모든 것을 다 결정하는 오늘의 정치현실. 해서 정치가 악할 땐 최악의 것이 되고 만다. 범을 잡으려면 범의 굴로 들어가야 한다는 속담처럼, 현실의 부조리를 양산해내는 정치계에 뛰어들어 최대한 악을 저지하고 조금이라도 선한 방향으로 나가게 하려는 것. 그래서 전민족을 사목

한다는 거시적 차원에서 이들 부부는 정치를 이해했고, 박 영숙 씨가 정치에 입문한 이유도 평민당에서 여성단체연합에 추천을 의뢰하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여기에 있다.

제13대 첫 국회의 유일한 '여성 대정 부죄의자'인 박 영숙 씨는 평소의 그답지 않게 조금은 떨려오는 소리로 질문을 시작했다. 그 떨림은 맺힌 한(恨)에 짓눌려 가슴이 찢겨진 이들의 절규요 어머니다운 처절한 애소였다.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서 제 심정의 일단을 피력할 수 있다는 것이 얼른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직전까지 재야에 있었는데, 그때 경찰서 과장 면담 요청조차도 번번히 입구에서 거부되었습니다. 머리카가 잡힌 채 닭장차에 실려 시내 외곽으로 버려지거나 경찰서 안으로 끌려들어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자리를 따지고 추궁하는 자리로 삼고 싶지 않고 오히려 간절한 심정으로 호소하고 싶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제발 좀 우리 함께 마음놓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봅시다 하고 간절하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추호의 여지도 없이 논리정연한 질의를 던져, 불과 며칠 전 어느 의원이 백골단의 정체에 관한 질의에서 자신은 모른다고 잡아떼었던 내무부 장관에게 사실을 인정하는 통쾌한 답변을 받아내, 국회가 잠시 수라장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첫 국회가 그에게 남겨준 지배적 인상은 한 겨울의 차가움, 사람의 피가 흐르지 않는 냉혈체 그것이었다. 4천 2백만 국민들의 대변자인 국회가 무엇보다 주력해야 할 것은 국민에게 어려움을 안겨다주는 문제들의 해결인데 그것들은 도외시하고 당리당략(黨利黨略)에만 급급함에 절벽 앞에 선 느낌이었다.

구인제(拘引制), 구속자 석방 등의

문제로 폐회가 더욱 늦추어진 1백 42회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 오후 세 시.수유리에 있는 그의 집 초인종을 눌렀을 때 부군 안 병무 씨가 대문을 열어주었다. “저 사람은 항상 밖으로 나다니까 바깥 사람이고 나는 주로 안에만 있으니 안사람이다”는 그의 농담을 증거하기라도 하듯. 다섯 시경 박 영숙 씨가 돌아왔을 때 그들 부부의 재회는 가히 극적이었다 하겠다.

“야- ! 오랜만이군. 우리 악수하자 !”

“아빠, 우리 70시간 만이죠? 글썄 우

리 70시간 만에 만났어요 !”

국회는 밤 12시까지 계속되었고 심근경색증으로 고생하는 안 병무 씨는 일찍 자리에 들어가야 하니 한 집에 살아도 마주 앉아 식사는 커녕 얼굴 볼 시간도 없었던 게다. 아침 식사는 하지 않는 게 이들 가족의 오랜 습관이니... 이런 정황을 안 박사는 어느 강연에서 이렇게 표현했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더니 정말 여자가 집을 돌보지 않으면 말이 아니더군요. 하지만 집안이 망해도 나라만 잘 된다면 됐어요”라고 듣고 있던 청중들은 안 병무 씨의 너그러움에 박수갈채를 보냈다. 사실 박 영숙 씨의 최고 협조자요 정신적 지주는 다름 아닌 부군 안 병무 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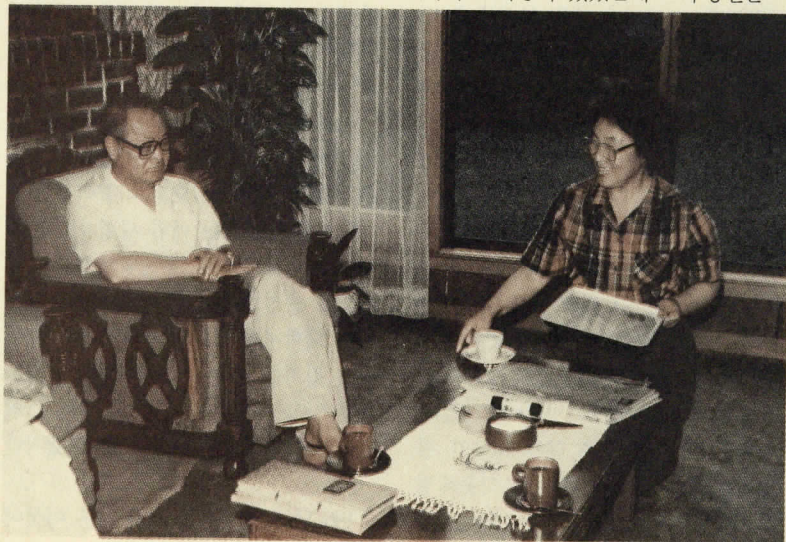
사람냄새 물씬 나는 사람이 되기까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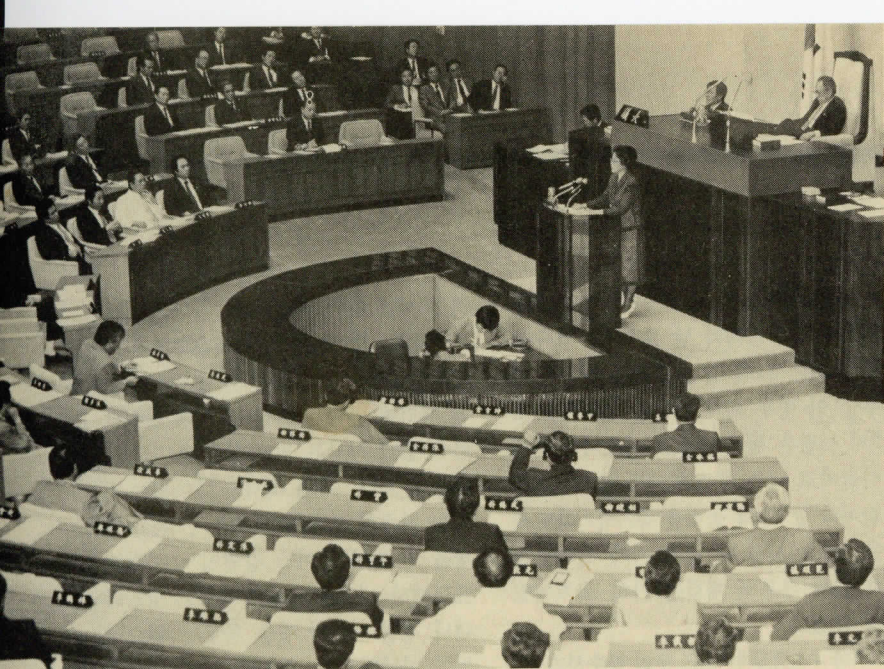
도도한 사무원 같다는 편지를 줄곧 들은 박 영숙 씨가 사람냄새 물씬 나는, 남의 고통과 아픔을 자기의 것으로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한 건 신의 섭리라 여겨지는 기나긴 역정을 통해서이다.

1932년 5월 28일, 그는 평양 수동 58번지에서 3남3녀 중 둘째로 태어났다. 근처에 교회당이 있었는데 그의 양친은



위 · 젊은 시절의 박 영숙 씨.
아래 · 부군 안 병무 씨와 함께.





국회에서 '대정부질의'를 하고 있다.

‘교회는 사람을 좋게 인도하는 곳’으로 이해하고 자녀들이 교회에 나가는 것을 허락했다. 그러다가 만주 봉천에서 누룩 공장을 하던 할아버지한테로 가서 살게 되었고, 그곳에서 동영국민학교를 다녔다. 그런데 할머니가 열심히 불교신자여서 잠시 그도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되었다. 그가 아홉 살 되던 해, 자동차에 휘발유 외의 다른 연료를 사용하도록 연구중이던 아버지가 과로로 병을 얻어 돌아가셨다. 그 이후 그의 어머니는 6남매 모두에게 대학교육을 시키려고 치열한 생활전선에 뛰어들었고, 그래서 그는 주로 할머니 밑에서 자라게 되었다. 해방되던 해 그들은 다시 고향인 평양에 돌아왔고, 박 영숙 씨는 그곳의 정여중에 입학했다. 그러나 이들 가족

은 1947년 월남하여, 당시 군 장성인 작은아버지가 살고 있던 광주시에 정착했고, 그는 전남여중에 재입학했다. 여순 반란사건으로 인해 작은아버지가 며칠씩 돌아오지 않아 크리스찬이던 작은어머니는 예수님께, 불교도이던 할머니는 부처님께 각기 기도를 했다.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서 따로따로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 할머니는 100일기도 후 개종을 결심했다. 이후 박 영숙 씨는 할머니와 함께 하루도 빠지는 일 없이 열심히 새벽기도에 다녔고, 전남여고 2학년 때는 광주 중앙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 당시 그는 고아원 원장같이 사회에 봉사하는 일을 하는 게 그의 꿈이었다.

이처럼 평양, 만주, 광주를 옮겨다니면서 그의 잠재의식 속에 민족주의가 자리잡히고 광주에 대한 관심이 싹트게 되었던 것일까.

이화여대 영문과를 진학한 그는 YWCA를 알게 되었고, YWCA와의 만남은 그를 여성운동인으로 이끌어주었다. 대학시절에도 그는 매일 새벽기도에 나갔고 방언의 은사를 부러워하기도 했던 참으로 순진한 신앙인이었다. 재미있는 것은 대학시절에 이미 〈야성〉(野聲)이라는 잡지를 통해 그 발행인인 안 병무 씨를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후에 그의 남편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겠지만...

1967년 12월 29일, 그가 서른 여섯이

있을 때 마흔 여섯의 독신주의자 안 병무 씨와 결혼하게 되었다. 사실 이 결혼은 그에게 있어서 커다란 전이의 계기가 되었다. 그는 그때까지 전형적인 중산층 여성의 사고방식으로, 여권을 신장시켜 남녀평등의 관계를 이룩해내는 것을 자신의 지상과제로 여겨왔었던 것이다. 그러나 안 병무 씨는 자기 희생은 철저히 거부하고 권리만을 주장하는 이기적 여성운동을 못 봐 주었고, 그래서 YWCA의 운동방향은 안 병무 씨에게 늘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당시 이들 부부는 서로 비슷하면서도 근본적으로는 아주 달랐다. 둘 다 결혼에 무관심했으나, 안 병무 씨는 결혼이 안정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사람으로만 든다고 보아 자신이 필요할 땐 언제든 지 투신할 수 있도록 독신으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 반면, 박 영숙 씨는 그저 그 부분에 무관심했다. 재산에 대한 태도 또한 그러했다. 박 영숙 씨가 돈에 애착하지 않은 것은 무심한 탓이었던 반면, 안 병무 씨는 소유 그 자체를 부정했다. 그래서 행여 쌀이나 연탄을 한꺼번에 많이 사놓을 양이면 박 영숙 씨는 남편으로부터 혼이 나곤 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박 영숙 씨도 이전 남편의 의도를 심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감사하기까지 한다.

지금 서울대학교 수학과 2학년에 재학중인 아들 재권이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점차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포기할 줄을 알게 되었다. 이들의 견해 차이가 결정적으로 좁혀진 계기는 1976년 3월 1일, 대통령 긴급조치 9호를 위반했다는 이른바 ‘명동사건’으로 인해 안 병무 씨가 잡혀들어간 때였다. 그때부터 그는 자신의 탈정치적 여성운동을 지양하고 여성운동도 민주화운동의 일환으로 전폭 수정해 이해하게 되었다.

그해 12월 29일 그들의 결혼 10주년 기념일에 안 병무 씨는 풀려났는데, 그는 아내가 그간 이희호 씨 등 다른 ‘삼

일가족'과 함께 구속자석방과 민주화를 위한 싸움 속에서 '고양이가 호랑이로' 바뀌어있음을 보게 되었다. 그 이후 박영숙 씨는 청량리경찰서 여대생 추행사건 대책위원회 위원장, KBS-TV 시청료 거부 범시민운동 여성연합 회장, 부천시 성고문사건 대책 여성단체연합회 회장, 최루탄 추방과 용공조작 및 고문철폐 대책위원회 공동대표, 해고여성근로자 복직운동원, 고 이 한열 열사 장례식 장례위원 등 민주화 운동의 이력을 붙여 나갔다.

그의 행동기준은 역사의 예수

무엇이나 철두철미 투신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그는 늘 시간에 쫓겨 그 좋은 손재주들을 하나도 살리지 못했다. 59년 필리핀 극동대학교 대학원에 재학중일 때도 자기 옷은 손수 지어입는 맵시쟁이였다. 뜨개질, 수예, 서예, 공예 등 손놀리는 일이면 무엇이든 좋아하지만, 그것들을 특기로까지 살리지는 못했다. 정치에 입문하기 전까지 음식을 꾸집하게 장만해서 손님을 대접하는 취미만은 여전히 못 버렸으나 안 병무 씨는 "당신의 취미를 살리기 위해선 내가 대사를 쫓 되어야겠군"하며 그의 씬씬이를 나무라곤 했다. 이제서 그것도 어렵게 되어 펍 아쉬운 듯. 허나 기회만 닿으면 그 바쁜 중에도 찾아온 손님에게 직접 차나 음식을 즐겨 대접하는 그는 지금도 가족들을 위해서 틈만 나면 밑반찬을 만들어 놓는다.

주일이면 이들 부부는 한국신학연구소에 있는 한백교회에 나간다. '한백'이란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즉 통일을 지향하는 이름이다. 큰 공동체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크게 알리지도 않았고 태어난 지도 10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들의 힘찬 걸음은 신앙과 생활을 구분하지 않는 입체적 예배 공동체로 이어간다. 목회자없이 평신도가 운영하며 현장의 소리나 노래(찬송가) 등 현실



안 병무 씨가 해직당한 첫 여름방학(1975년)에 YWCA에서 주최한 가족캠프에 온 식구가 참석했다.

과의 연결을 피하며 민족의 혼을 불러 일으키는 이 공동체는 이들 부부의 삶 의 또 하나의 터이기도 하다.

박 영숙 씨는 정기적 기도나 그 외 일반 그리스도인의 기준으로 본다면 자신은 종교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까지 말한다. 그러나 그의 운동이나 정치활동의 기준은 어디까지나 역사의 예수이다. 그는 특히 결정이 어려운 상황이 되면 '이 상황에서 남편은 어떻게 행동할까?'를 생각한다. 안 병무 씨의 행동기준이 바로 역사의 예수이며, 그는 늘 '예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을까' 생각하며 자기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예수는 공생활을 시작하자마자 어떤 한 사람을 위해 자신이 죽어야 했다면 그는 아마 그 순간 자기 목숨을 내놓았을 거라고 그들 부부는 믿는다. 무엇보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들 삶의 태도 근처엔 역사의 예수가 뿌리깊

이 현존함을 부인할 필요도 없었다.

나라의 큰 일꾼이기 전에 박 영숙 씨는 한 여성으로, 한 사람의 아내이자 어머니로서, 그들에 대한 소박한 소망이 있다. 그건 삼일사건으로 잡혀가 건강을 심하게 해친 안 병무 씨가 건강을 회복하여 학계나 민족문제 등에 계속 공헌해주는 일이다. 그리고 아들 재권이가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남을 의식하며 이웃과 더불어사는 사람으로 성숙한 어른이 되어주길 바라고, 재권이도 자기 아버지와 같이 대학에서 가르치는 일이 그의 적성에 맞다고 여겨지기에 학업에 열중해주길 바란다. 하지만 조그만 역사의식만 가져도 학문에 열중할 수 없는 우리의 대학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그의 간절한 기도요 소망은

박 영숙 씨에게는 현실이 양극화되었

다는 게 현재 우리의 가장 큰 문제로 보인다. 가진 자는 물질이나 교육이나 권력이 있어서 너무 많이 가졌고, 못 가진 자는 이 모든 것에 절대적 빈곤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편중현상이 결국 지역적 갈등까지 빚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그는 늘 마음이 편치 못하다. 또한 분단을 빌미로 폭력정치, 탄압정치를 계속하는 정부가 한에 맺힌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도 이 사회의 커다란 문제로 꼽는다.

살아오면서 그가 가장 기뻐던 일은, 김 대중 씨의 구명을 위해 정신없이 뛰어다니던 어느 날, 김 대중 씨의 사형선고가 무기로 감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때라고 회고한다.

동시에 가장 슬펐던 일은 권 인숙 양이 재판정에서 1년 6개월의 선고를 받았을 때였다고 기억한다. 가해자 문 귀동 씨는 백주에 활발하게 하고, 피해자 권양은 실형을 받고 구치소로 가야 하는 그 부조리에 그는 땅을 치고 통곡해도 시원치 않을 성싶었다. 그는 권 인숙 사건으로 인해 봉고차에 실린 채 견인차에 끌려 북부경찰서에 끌려가기까지 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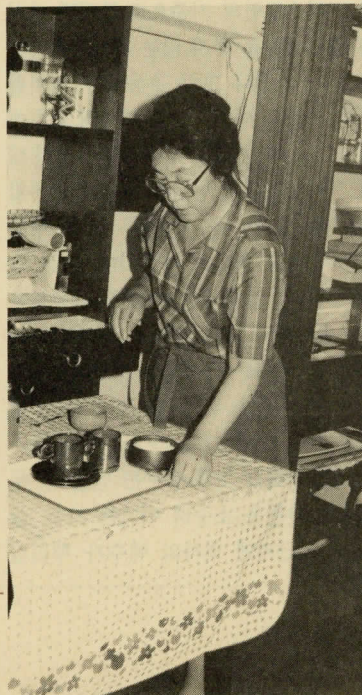
윤락여성들, 저임금근로자들, 버림받은 장애인들 등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과 좌경공공분자로 조작된 장기구속자들, 사회안정법에 따라 보호감호된 사람들, 연소 여성근로자들 등 심하게 인권침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그의 관심은 그를 잠시도 편히 쉴 수 없게 한다. 특히 그는 장기수들이 하루속히 광명 세상에 살게 되길 갈망한다.

그는 이상적 남녀상을 구분하는 우리네 전통적 견해를 따르지 않는다. 현모양처 등 이상적 여성상이란 사실을 남성을 위한 이데올로기일 뿐이므로, 그래서 차라리 '이상적 인간상'이라는 말마디를 택한다. 그런데 이 이상을 언급하기 전에 특히 여성이 한 인간으로 살수 있도록 사회가 제도적 문화적으로 보장

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그 기초 위에서 여성은 여성의 특성을, 남성은 남성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것이다.

여성은 특히 자식을 키우면서 자기 아닌 다른 사람에게 관심 갖는 것을 배운다. 그래서 가정에 헌신적이다 못해 가정을 위해서는 생명까지 내놓을 수 있다. 그는 이 헌신적 희생정신이 가정의 테두리를 벗어나 사회에까지 뻗어나가도록, 사회의 모든 이에게까지 이러한

위·민가협 어머니들의 농성장에서.
아래·손수 손님 접대를 즐겨하는 박 영숙 씨.



관심과 사랑을 지니도록 이 땅의 여성들에게 당부하고 싶어한다.

나아가 그는 정치계에 여성들이 더 많이 참여하기를 바란다. 그것은 단순히 정치에 있어서 남녀동등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차원이 아니다. 그가 여성의 정치참여를 바라는 것은, 정치의 첫째 과제를 국민의 아픔을 해소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물량위주, 성장위주의 가치관을 가지고 국정을 처리하는 남성들에게만 정치를 맡겨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남성들이 친취적이고 성장위주의 방향이라면, 여성들은 국민의 아픔을 감싸주고 해소시키는 어머니의 역할에 제격이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정치소명도 이런 차원에서 이해한다.

요즘의 그의 간절한 기도요 소망은 최루탄이 없는 사회, 화염병이 없는 사회, 투석전이 없는 사회, 대학생 아들과 전경 아들이 맞서 싸우지 않는 사회, 폭력정치가 사라지고 인명을 보다 중시하는 사회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인명중시의 일환으로, 이대로 가다간 몇 년 후면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보다 에이즈로 죽는 사람이 더 많아 질 것이 예상되므로, 현대의 흑사병이라 일컬어지는 이 에이즈의 만연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항체검사를 실시하는 법을 올림픽 전에 만드는 일이다. 정부에서는 그 법이 외화수입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외국(선진국)에는 그러한 법이 없는데 우리나라만 그런 법을 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대답한다. 하지만 그는 물질보다는 인명이 중요하고, 다른 국은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옮겨지지만 이 범만큼은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전역되는 것이므로 선진국에 이런 법이 없다하여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그는 모든 어머니들이 일어나 이 법을 제정하도록 시위라도 벌였으면 한단다. ☐